

한국바둑 심상 찰다

강원랜드배서 中에 완패 단체전 불패신화 마감 이창호·이세돌 등도 동반 침묵 '최대 위기' 봉착

지난달 24일 제1회 강원랜드배 한·중바둑대전에서 한국이 중국에 패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항저우에서 벌어진 이 대회에서 한국은 주장 이창호 9단이 중국 2장 장하오 9단에게 흑 3집반배를 당해 원년 우승컵을 중국에 내주어야 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은 6대 메이저 국제기전 중 4개 대회를 우승해 세계 바둑 최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지킬 수 있었다.

한국은 비록 '바둑 올림픽' 응씨배와 LG배에서 중국의 장하오와 일본 장우에게 우승을 내주었지만 이세돌이 도요타 텐소배와 후지쓰배에서 우승하며 국제기전 2관왕에 오르는 등 예년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열린 세 차례의 국제기전에서 한국은 졸졸이 우승을 놓치며 부진의 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월 제10회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이창호 9단이 중국의 '속기천재' 휘시허 9단에게 패한 데 이어 LG배 세계기왕전에서는 중국의 구리 7단과 천야오에 5단이 결승에 올라 중국의 우승이 확정된 상태이다.

2월 제7회 농심 신라면배에서는 최종전에서 한국주장 이창호 9단이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에게 패해 농심 신라면배 7연패에 실패했다.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춘란배 16강전에서는 일본이 8강 진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 6-2로 한국에 패한 우세를 보여 또 한 번의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바둑계의 근심은 무엇보다 세계최강 이창호의 부진에 예사롭지 않다. 이창호는 지난해 11월 제10회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휘시허 9단에게 패한 뒤 국 제대회 결승전에서 처음 외국기사에게 패하는 아픔을 겪었던 이창호는 결국 농심 신라면배에서 강원랜드배에서도 패해 지난 십 수 년 간 한국바둑의 단체전 불패신화를 이끌어 온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창호의 부진을 메워 줄



세계 바둑계 명주로 군림해온 한국 바둑이 중국의 거센 도전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이창호 9단이 중국의 휘시허에게 패권을 내줬던 제10회 삼성화재배 결승 대국 장면.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송태곤 등이 국제기전에서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국바둑 간판스타들의 이유 없는 동반 침묵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 해가 90년대 이후 승승장구를 거듭해 온 한국바둑계에 있어 최대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송태곤 등이 국제기전에서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국바둑 간판스타들의 이유 없는 동반 침묵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 해가 90년대 이후 승승장구를 거듭해 온 한국바둑계에 있어 최대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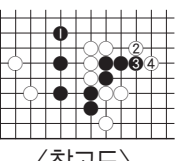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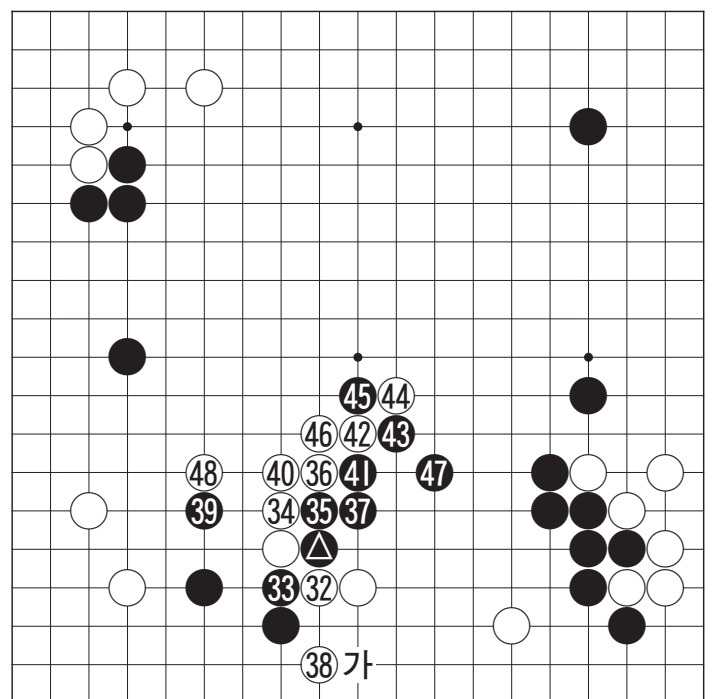


힘겨루기

본선 19국 제 3보(32~48)

白 조 한 승 (8단)
<타이젠>

黑 이 상 훈 (8단)
<엠게임>



<참고도>

흑이 이번 백 한 점에 불려간 점에 마의 요령이 며 전단을 찾는 맥점이다. 우하귀에서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세력을 차지한 만큼 흑이 39로 봉쇄를 피해한 것도 역시 절대점이다. 기본대로 40의 곳을 끊었다가 이곳을 막히면 실사 흑 석점이 살아도 바둑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흑 41도 이렇게 밀어야 할 것이 아니라 41로 끊어주면 42로 끊어주면 백은 2로 씌우고 4로 봉쇄하게 된다. 흑이 어렵게 살게 된다 하더라도 외곽을 막히게 돼 말한다. 바둑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다. 흑이 39로 봉쇄를 피해한 것도 역시 절대점이다. 기본대로 40의 곳을 끊었다가 이곳을 막히면 실사 흑 석점이 살아도 바둑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흑 41도 이렇게 밀어야 할 것이 아니라 41로 끊어주면 42로 끊어주면 백은 2로 씌우고 4로 봉쇄하게 된다. 흑이 어렵게 살게 된다 하더라도 외곽을 막히게 돼 말한다. 바둑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다. 흑이 39로 봉쇄를 피해한 것도 역시 절대점이다. 기본대로 40의 곳을 끊었다가 이곳을 막히면 실사 흑 석점이 살아도 바둑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흑의 다음 수순은 어디일까.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독사' 최철한 "멍군ियो"

맥심커피배 2국 이세돌에 불계승

'새신랑' 이세돌의 2연패나, '독사' 최철한의 정상탈환이다.

'신사대천왕' 핵심 멤버들이 이세돌 9단과 최철한 9단이 맥심커피배 입선 최강전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승부가 바둑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결승 3국으로 승부를 가리는 상황에서 현재 둘의 승부는 1-1, 원점이다. 타이틀 방어를 내신 이세돌 9단이 먼저 1승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달 26일 사이판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최철한 9단이 백 불계승으로 우승했다.

이날 대국 초반은 최철한 9단의 살리 대 이세돌 9단의 두터움으로 전개됐다.

중반 접전에서 이세돌 9단이 상변에 침입한 후 승부가 급격히 기울었다. 이후 최 9단이 깔끔하게 타개하는 솜씨가 돋보였다. 이 9단은 상변에 패를 만들면서 버텼으나, 결국 돌을 던졌다.

이날 대국 초반은 최철한 9단의 살리 대 이세돌 9단의 두터움으로 전개됐다.

절식시간 대국 훈수 이젠 끝~

한국기원 '대화 감독관제' 도입

5월 LG배 본선 32강전부터 운영

국내 기전 사상 처음으로 '대화 감독관제'가 도입된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오는 5월 제11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 32강전부터 점심시간 기사의 대국과 관련한 대화를 규제하기 위해 대화 감독관제가 운영된다.

대화감독관제 도입은 국내는 물론 한·중·일 3국에서 열리는 기전 가운데 LG배가 최초로 적용된다. 그동안 대국장에서는 이른 바 '훈수'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점심 시간만큼은 예외였다.

보통 1시간 정도 점심 시간에 대국 중인 기사가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는지 전혀 제약을 가하지 않았던 것. 점심을 마친 기사가 대국장에 복귀한 뒤 판의 형세가 갑자기 뒤집히는 상황이 종종 벌어짐에 따라 일부 기사는 '훈수'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대화감독관제는 출전 기사들을 소속 국가별로 한 곳으로 안내해 함께 점심식사를 하도록 한 뒤 바둑수(手)에 관한 대화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식사 자리에 타 국가의 단장이 인정하는 감독관이 입회하게 된다. 출전기사는 대국장 근처 검토실에 마련된 인터넷 중계화면도 볼 수 없다.

주최 측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승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화의 권위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혜연 6단→7단 승단

입문 9년만에 '구체'

조혜연 6단이 로종 여류기사 사상 최고 단위인 7단(具體)에 오른다.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어 완성에 이르렀다. 바둑 단의 별칭)으로 승단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조 6단이 제11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결승 3경기 제2국에서 루이 9단에게 패했으나 규정 대국수를 채우면서 7단으로 승단했다.

올해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조 7단은 지난 97년 입단, 프로 9년 만에 구체의 자리에 올랐다.



조혜연 6단

올해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조 7단은 지난 97년 입단, 프로 9년 만에 구체의 자리에 올랐다.

올해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조 7단은 지난 97년 입단, 프로 9년 만에 구체의 자리에 올랐다.

올해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조 7단은 지난 97년 입단, 프로 9년 만에 구체의 자리에 올랐다.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a 'Happy Time' banner and a list of movies.

메가박스 (Megabox) section listing movies like '청춘만화' and '편린한 덕인 제인'.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section listing movies like '방과 후 옥상' and '데이지'.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section listing movies like '방과 후 옥상' and '오만과 편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부동산컨설팅·정기유업부사' with contact info 222-8446.

다우공인중개사 (Dau Gong Injeung-gaesa)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803-1308.

성공시대부동산 (Seongguk Sidae Budeongsan)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828-8549.

금보부동산컨설팅 (Geumbo Budeongsan Konseulting)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602-2233.

신창타워분양·임대 (Shinchang Tower Bonyang/Imdae)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62-368-0030.

BK부동산(한국지사) (BK Budeongsan)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600-0380.

금호공인중개사 (Geumho Gonginjeung-gaesa)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603-3663.

에셋코리아부동산컨설팅·정기유업부사 (Eset Korea Budeongsan)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222-8446.

다우공인중개사 (Dau Gong Injeung-gaesa)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803-1308.

성공시대부동산 (Seongguk Sidae Budeongsan)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828-8549.

금보부동산컨설팅 (Geumbo Budeongsan Konseulting)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602-2233.

신창타워분양·임대 (Shinchang Tower Bonyang/Imdae)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62-368-0030.

BK부동산(한국지사) (BK Budeongsan)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600-0380.

금호공인중개사 (Geumho Gonginjeung-gaesa)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011-603-3663.

에셋코리아부동산컨설팅·정기유업부사 (Eset Korea Budeongsan) real estate ad with contact info 222-8446.